



# 배경사



## 제29장 바울의 성령 이해(1)

Jesus

### I. 그리스도와 성령:로마서 8:1~4

#### ➤ 서론

- 1) 바울이 성령론을 제시할 때 인식한 두가지 사실,
- 2) 바울의 성령론

#### ➤ 로마서 8:1의 주석

- 1) 성령의 사역의 장소, 2) 성령의 사역의 특징,
- 3) 성령의 사역의 기원, 4) 성령의 사역의 목적

#### ➤ 결론

저자: 김정주, 출판사:기독교문서선교회





# 1. 서론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1-4)





# 1. 서론 ●●

## 1) 바울이 성령론을 제시할 때 역사적 두 가지 배경

- ▶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롬3 :10 이하)
- ▶ 바울이 도덕 폐기론을 가르친다는 비방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3:8; 6:1)





# 1. 서론

## 2) 바울의 성령론

- ▶ 성령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신다.
- ▶ 성령의 성결하시게 하는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시는 사역을 증거한다.
- ▶ 성령의 사역의 출발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 2. 로마서 8:1-4 주석 ●

### 1) 성령의 사역의 장소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 2. 로마서 8:1-4 주석 ●

### 1) 성령의 사역의 장소 - 2

- ▶ Otto Michel : 로마서 8장 1절 이하는 로마서 7장 5-6절을 반복하는 것으로 단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 주어진 자유를 다루고 있으며 로마서 7장 25절과는 단절되어 있다.
- ▶ John Murray :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로부터의 구원은 로마서 7장 25절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8장 1절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25의 논리적 귀결이며 앞으로 전개 될 바울의 성령론의 개괄적인 서술이다.





## 2. 로마서 8:1-4 주석 ●

### 1) 성령의 사역의 장소 - 3

- ④ 이제: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믿음의 시간
- ④ 없나니: ‘어떤 것도 전혀 없는’ 이라는 의미를 지님
- ④ 정죄: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집행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심판선고” 를 뜻함







## 2. 로마서 8:1-4 주석 ●

### 1) 성령의 사역의 장소 - 4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하였다.





## 2. 로마서 8:1-4 주석 ●

### 1) 성령의 사역의 장소 -5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Kaesemann: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한 부분도 아니다. -> 이 관점은 문제 있음.





## 2. 로마서 8:1-4 주석 ●

### 1) 성령의 사역의 장소 -6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18~19)

▶ 복음의 선포에 진노는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은 분리될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로마서 8:1-4 주석 ●

### 1) 성령의 사역의 장소 -7

▶ 의문점 :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바울의 주장과 복음 속에 진노함이 있다는 주장은 상충되는 요소가 아닐까?

**상충되지 않는 이유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 나타남이다.**





## 2. 로마서 8:1-4 주석 ●

### 1) 성령의 사역의 장소 - 8

- ▶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을 자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제한하고 있어, 구원의 영역을 일컫는다.
- ▶ ‘안에’ :순수하게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죄의 정죄가 제거된 것이 실체가 된 영역임





## 2. 로마서 8:1-4 주석 ●

### 1) 성령의 사역의 장소 -9

- ▶ Walter Grundmann: 바울은 '주'라는 칭호를 '예수'라는 고유 명사와 동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쓰지 않았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고유명사가 아니라 메시아 직함으로 사용.
- ▶ C.F.D.Moule: 직함으로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적 행동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려해 볼 때, 예수 자신으로부터 기원하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메시아라고 밝히지 말라는 명령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 개념을 부인함을 뜻한다.





## 2. 로마서 8:1-4 주석 ●●

### 2) 성령의 사역의 특징 - 1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2)

▶ Eduard Lohse: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모두 모세의 율법인데, 하나는 성령 안에서 회복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 2. 로마서 8:1-4 주석 ●●

### 2) 성령의 사역의 특징 - 2

▶ Lohse의 주장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대치된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Lohse와 다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은 원칙이나 힘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Lohse의 주장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안에서 회복된 모세의 율법이라는 주장도 어색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주장은 바울이 평소에 주장하는 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하기 때문이다.







## 2. 로마서 8:1-4 주석 ●●

### 2) 성령의 사역의 특징 - 3

- ▶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의 주어는 성령이시며,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자유케하신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 ▶ 이사야 61장1절은 성령의 힘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고난받는 종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





## 2. 로마서 8:1-4 주석 ●●

### 2) 성령의 사역의 특징 - 4

- ▶ 도덕폐기론자들은 성령의 은혜 안의 삶을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의 충동을 따르는 무법적인 삶으로 오해했다.
- ▶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함을 말하여, 성령의 사역은 성결함과 거듭남을 가져 옴을 강조하고 있다.





## 2. 로마서 8:1-4 주석 ●●●

### 3) 성령의 사역의 기원 - 1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로마서 8:3)

〔 육신으로 말이암아: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이다. 〕



## 2. 로마서 8:1-4 주석

### 3) 성령의 사역의 기원 - 2

▶ ‘자기 아들’ : 예수께 속하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 되심을 강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자하신 아버지 되심도 강조하는 표현이다.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셨음을 계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인다 (참조: 로마서 8:32).

▶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택한 모든 자들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 2. 로마서 8:1-4 주석

### 3) 성령의 사역의 기원 - 3

❖ ‘죄 있는 육신의 모양’ : 죄있는 육신이 아닌,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라고 말함은 그리스도는 죄의 모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육신을 입으셨으나, 결코 죄 있는 육신이 되지 않으셨음을 뜻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심과 동시에 본질에서 신성을 가지심을 계시하는 구문이다.

❖ ‘육신에 죄를 정하사’ :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집행을 그 아들의 육신에 하셨음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완전한 구속이 일어남을 보여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곧 그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됨으로 십자가 사건은 성령의 역사의 기원이 된다(참조: 갈 3:13-14).





## 2. 로마서 8:1-4 주석

### 4) 성령의 사역의 목적 - 1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4)**





## 2. 로마서 8:1-4 주석

### 4) 성령의 사역의 목적 - 2

▶ ‘율법의 요구’ : 율법의 요구를 단수로 표현하여, 율법 안에 표현된 권면들은 혼란한 덩어리가 아니라 일치함을 보임.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목적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 2. 로마서 8:1-4 주석

### 4) 성령의 사역의 목적 - 3

- ▶ ‘이루다’ : 율법이 뜻하는 모든 종국적 결론 이루어짐 의미.
- ▶ 칼빈: ‘이루다’ 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들을 위해 인정되고, 율법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만족되었기 때문임을 잘 지적하고 있다.







## 2. 로마서 8:1-4 주석

### 4) 성령의 사역의 목적 - 4

#### ▶ 육신을 따라가는 것:

-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
-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행위.
- 육신이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모든 의도 지칭.

#### ▶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

-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는 삶.
-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삶
- 거룩함을 추구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멀리하는 삶





### 3. 결론

#### 성령의 역할

1.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가 없다. (로마서 8:1)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이다.(로마서 8:2)

3. 육신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기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사 그 육신에 죄를 정죄하셨다. (로마서 8:3)

4.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아  
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인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로마서 8:4)

